

농어촌 빈집들며 역대 털어 중국인 3명 구속·3명 수배

담양경찰청은 3일 농어촌 지역 빈집을 돌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왕모(27)씨 등 중국인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일당 3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일 정오께 담양읍 담양읍 한 주택에 들어가 100만여원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전남·전북·경남 등 전국을 돌며 78차례에 걸쳐 모두 1억7천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푸젠성(福建省) 출신의 선후배 관계로 각각 2000년과 2004년 산업 연수생이나 여행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해 경기도 안산공단에서 일을 하다 체류기간이 끝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기도 안산의 한 고시원에서 범행지역을 물색한 뒤, 고속버스를 타고 전국을 이동하며 경찰의 검문검색을 피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돈을 중국으로 송금했을 것으로 보고 돈의 사용자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aha@kwangju.co.kr

‘재첩 분쟁’ 2라운드

광양시 항소...어민들 “항만봉쇄 불사”

광양지역 재첩잡이 어민들이 맨손어업을 불허(본보 7월27일자 7면)한 광양시에 맞서 항만 봉쇄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광양 어민회’(회장 김영현)는 3일 “광양시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취소하고, 맨손어업을 허가해야 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광양컨테이너부두 등 항만 봉쇄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어민회는 다음 주중 시 관계자와 함께 해양수산부를 방문,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들은 후 항만 봉쇄 투쟁 강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6월22일 광양 도월리 어민들이 제기한 ‘어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하자 이에 불복, 지난 1일 항소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박대표 습격’ 지충호씨 11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3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지충호씨의 선고공판에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 광주 기상관측점(AWS) 6곳 5년간 열대야 분석해 보니

서구 풍암동 열섬현상 ‘뜨거운 밤’ 광산 용곡동 바람많아 ‘선선한 밤’

광주시 서구 풍암동 주민들은 열대야(熱帶夜) 현상 때문에 새벽에 깨지만, 광산구 용곡동 주민들은 시원한 바람 속에서 숙면을 취한다.

새벽에도 기온이 25도가 넘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의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는 ‘열섬현상’(heat island)이 뚜렷이 나타나 열대야가 일어나는 날이 훨씬 많았으나, 외곽지역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이 운용 중인 ‘자동 기상관측시스템’(AWS·automatic weather system) 6개소의 최근 5년(2002~2006년)간 7·8월 측정자료를 토대로 광주시에 열대야 현상을 분석했

월드컵경기장 47일 최고
아스팔트·인구밀집 따라
지역마다 밤기온 큰 차이

단 AWS(광산구 장덕동·고도 34m)에서는 38일간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고 ▲조선대학교 AWS(동구 서석동·고도 60m) 32일 ▲광주지방기상청 AWS(북구 운암동·고도 71m) 27일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AWS(광산구 용곡동·고도 37m) 22일 등의 순이었다.

현재 기상청이 광주가 열대야 현상이 있었다고 밝히는 기준은 광주지방기상청 AWS 관측 결과다. 열대야 현상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서구 풍암동 인근은 열대야였던 날이 최근 5년간 20일이나 있었다는 얘기가.

◇기온차 왜 날까=인구가 밀집한 곳에서는 녹지가 많은 농촌에 비해 자동차·공장·건물 등이 많아 다량의 인공 열이 발생한다. 열을 잘 흡수하는

■최근 5년간 광주 6개 AWS 열대야 측정 일수 (단위:일)

장소	년도	'02	'03	'04	'05	'06	계
시 농업기술센터(광산구 용곡동)	3	6	5	4	4	22	
광주지방기상청(북구 운암동)	3	1	6	13	4	27	
무등산 정봉재	0	0	0	0	0	0	
조선대학교(동구 서석동)	4	1	11	14	2	32	
월드컵 경기장(서구 풍암동)	5	6	17	12	7	47	
하남산업단지(광산구 장덕동)	6	7	9	10	6	38	

* 2006년은 7월 18일 현재 기준

아스팔트 도로는 쉽게 가열되고 건조해진다. 이 같은 ‘열섬현상’은 열대야로 이어진다.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아스팔트 도로가 대부분인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열대야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남산업단지 관리공단 부근도 대단위 공장이 밀집돼 있어,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과 함께 공장 열기가 더해져 낮에는 최고 35도를 웃도는 날이 많다. 높은 건물로 인해 공기의 흐름도 활발하지 않아, 밤이 돼도 열기가 쉽게 식지 않는다.

무등산 정봉재는 그러나 해발 고도가 높아 도시에 비해 온도가 낮다. 장애물도 없어 공기의 흐름도 원활하다. 장봉재는 한여름에도 가을 날씨인 13.4도(2003년 7월)를 기록한 적도 있었다.

◇올 열대야는 언제까지=지난해 광주의 열대야 발생 건수(북구 운암동 광주지방기상청 AWS 기준)는 13일로, 2004년에 비해 7일 더 많았다. 올해는 지난달 13일 처음 시작돼 8월2일 까지 8일 나타났다.

기상청은 이달 중순까지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열대야 현상이 다수 발생, 지난해 기록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년보다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등산 정봉재는 그러나 해발 고도가 높아 도시에 비해 온도가 낮다. 장애물도 없어 공기의 흐름도 원활하다. 장봉재는 한여름에도 가을 날씨인 13.4도(2003년 7월)를 기록한 적도 있었다.

◇올 열대야는 언제까지=지난해 광주의 열대야 발생 건수(북구 운암동 광주지방기상청 AWS 기준)는 13일로, 2004년에 비해 7일 더 많았다. 올해는 지난달 13일 처음 시작돼 8월2일 까지 8일 나타났다.

기상청은 이달 중순까지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열대야 현상이 다수 발생, 지난해 기록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년보다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달 중순까지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열대야 현상이 다수 발생, 지난해 기록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년보다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달 중순까지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열대야 현상이 다수 발생, 지난해 기록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년보다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열대야 현상으로 잠 못 이루는 광주 시민들이 침탄지구 쌍암공원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광주 시내 인구밀집 지역은 외곽보다 최대 두 배 가까이 열대야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밤 승용차 화재 2명 숨져

에어컨 켜 채 잠들어 엔진과열 불난 듯

3일 새벽 2시20분께 순천시 연향동 팔마경기장 앞에 주차돼 있던 60나34X X호 프린스 승용차(96년식)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최모(56)씨와 김모(여·47)씨 등 2명이 숨졌다.

경찰은 최씨의 차가 1시간 전부터 시동이 걸려져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발화 지점이 엔진의 점으로 미루, 에어

컨을 틀어놓고 잠들었다가 엔진이 과열돼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내연관계인 점에 주목, 방화 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정차 중 에어컨 30분마다 꺼야 ‘안전’

▲자동차 에어컨 안전인가? = 자동차 에어컨은 엔진에 연결된 ‘컴프레서’(Compressor)가 냉매(프레온 가스)를 순환시키면서 공기를 냉각시키는 구조다. ‘컴프레서’는 엔진의 동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는 순간 엔진의 동력 중 10% 가량이 소모된다.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엔진의 분당 회전수(RPM)가 최소 1

천~1천200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차 중 RPM은 700~850에 불과해 에어컨을 켜면 엔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주행 중 RPM은 2천 정도에 엔진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서광주서비스 운대환 사장은 “정차 중 에어컨을 켜 상태를 30분 정도마다 시동을 꺼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연예계 동림회
대주 피오레
1,300여 세니 중 35명만 3534세
문의 (062)366-4220

음주운전 사고나자 애인 놔두고 줄행랑



○음주 단속을 피해 단속 의경을치고 달아났던 30대 운전자가 자신이 몰던 승용차가 눈에 빠지자 동승했던 여자친구를 차 안에 남겨두고 행방을 감춘다 뒤늦게 자수.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건축업자 N(31·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3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동고개에서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박모(21) 일경을 치어 팔과 무릎 등에 부상을 입히고 줄행랑.

○N씨는 술김에 허둥지둥 달아나다 3km 쯤 떨어진 북구 청풍동 등촌마을 앞 논에 차를 빠뜨렸는데, 함께 술을 마신 여자 친구(24)는 그대로 두고 혼자서만 달아난 것.

○3일 오후 경찰에 자수한 N씨는 “여자 친구가 너무 취해 휠체어에 실어서 데리고 가지 못했다”며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적이 있어 달아났다”고 뒤늦게 자수.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우려목 공법...
- 과다하중으로 인한 우려목
- 낙하물 위험
- 인공사면 붕괴
- 붕괴 위험

우려목 공법...
- 구조물 붕괴
- 인공사면 붕괴
- 붕괴 위험

우려목 공법...
- 구조물 붕괴
- 인공사면 붕괴
- 붕괴 위험

최신 출시된 SONY의 명품들

2006 소니 핸드캠 여름도상축제

소니 광주전시판매장
☎ (082)522-2000

소니 공식 서비스센터
☎ (062)514-3000